

# 현대 공간에서 나타나는 베르그송의 동시성 연구\*\*

## A Study on Bergson's Simultaneity Revealed in Modern Spaces

**Author** 이상준 Lee, Sang-Jun / 정회원,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 전문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과정  
이 찬 Lee, Cha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조형대학 실내디자인학과 교수\*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stablish the foundation for a simultaneity research, draw the potential through Bergson's simultaneity, and explore a space with the possibility of a continued change, focusing on the simultaneous process, in which physical mobility and consciousness of space last together. First, this study was focused on understanding Bergson's simultaneity, on the basis of the perspective that space needs to have more active, dynamic mobility. For understanding Bergson's simultaneity, the understanding of Bergson's duration conception, memory and perception was preceded. After that, the characteristics of simultaneity were extracted from the concepts of duration, change, memory and perception and its characteristics, which are connected to space,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study on simultaneity that was intensively analyzed, based on diverse cases, re-awakened the basis of value or thought, which we must aim at, in space design of the present time . This shows the possibility of another creative form that can be found in spaces of the present time and serves as the foundation to discover an essential and potential value of space in space design. Moreover, the combination of space with science, humanities, art and digital media technology demonstrated once again that there is a good possibility of approaching non-representational space that is pursued today and it is anticipated that using Bergson's simultaneity as a medium for spatial combination in their relationship would help in drawing deeper internal meaning and potential of space.

**Keywords** 공간, 지속, 동시성, 베르그송  
Space, Duration, Simultaneity, Bergson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근대적 사유의 틀 속에서 우리는 편의에 의한 자의적 해석으로 결정해버린 세계의 묘사에 익숙해져 있다. 이러한 인간 중심의 경직된 사고는 공간을 디자인함에 있어서 표상적이고 물질적인 공간 표현으로 귀결되어 비유동적이고 경직된 형식을 벗어나지 못하게 하고 있다.

오늘날 현대 공간이 보다 고차원적인 모습으로 변모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고정적인 형식으로서의 접근 보다는 시간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이끌어낼 수 있는 유동적인 형식일 것이다. 다시 말해 오늘날 공간은 다각적인 사유와 개념의 결합을 통해 시간의 모습을 드러내고

지각될 수 있는 흐름의 형식으로 다가와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프랑스의 철학자 베르그송이 이끌어온 사유의 필요성이 강조 될 수 있다.

베르그송은 지속적인 흐름의 관점으로 시간을 말한다. 그는 경험과 기억이 삶을 이뤄가고 진화시킨다고 말하면서 시간에 대한 사유를 동시성의 개념으로 풀어 간다. 또한 그는 과학의 시간관이 물질세계를 이분화하고 대상을 분절시켜 파악하려하기 때문에 매 순간 지속을 행하며 변화하는 대상의 실재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지적한다. 오늘날 공간이 드러내는 경직된 모습은 이러한 과학적 시간관 속에 놓여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공간 표현에 있어서 구조적이거나 형태적 차원의 하나로 강조된 질서나 분절된 면들은 공간의 자유로움을 방해하고 공간이 지닐 수 있는 변화의 잠재성을 이끌어내지 못하기도 한다. 이렇듯 공간을 향한 새로운 시도와 함께 변모하는 과정에 있어서 베르그송의 철학적 시간관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lc@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5년 정부(교육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22B-2013-0012-671)

에 대한 사유는 그 필요성이 강조 될 수 있는 적절한 이론적 배경이 되고 있다.

본 연구는 근대성을 쉽게 지울 수 없는 오늘날의 공간 형식을 부인하기보다 새로운 공간 형식을 위해 능동적으로 발현되는 시간적 개념과 그 유동적인 흐름이 지각될 수 있는 방향을 추구하고자 한다.

오늘날 베르그송의 철학을 통해 풀어낸 예술과 공간에 대한 연구의 지적 성과들은 많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간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시간의 흐름을 담아내려 하는 공간 연구는 부족해 보인다.

이에 본 연구는 베르그송의 시간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보다 직접적으로 이해되고 경험 될 수 있는 시간의 형식을 현대 공간에서 찾고 이와 같은 공간 전개에 관점을 같이하려는 연구들에 힘을 보태고자한다.

더불어 베르그송의 동시성을 통해 공간 차원에서 아직 드러나지 못한 심연의 잠재성을 이끌어내고 지속적 변화의 가능성을 지닌 시간의 공간과 흐름의 공간에 대한 탐색에 본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 1.2. 연구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는 베르그송의 시간관에 대한 고찰에서 시작한다. 베르그송의 동시성에 대한 이해는 그의 철학에 담긴 시간적 개념들에 대한 이해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본 연구는 베르그송의 시간 철학을 이루는 개념들로 고찰의 범위를 설정하고 집중한다.

직접적으로 드러날 수 있고 경험되는 시간의 모습으로 제시될 필요가 있다는 공간에 대한 본 연구의 관점은 베르그송의 동시성을 물질과 의식이 서로 교감하는 지속의 차원 이해하고 공간과의 접점을 풀어가고자 하였다.

그에 따라 베르그송의 동시성이 지닌 특성 및 개념들을 공간적 특성으로 접근하여 분석한다. 이러한 전개는 동시성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보여준 연구 방향과는 다르다. 가시적으로 드러나 지각 될 수 있는 시간적 개념의 근거를 만들고 그에 따라 서술된 특성들을 공간적 관점으로 풀어가게 된다. 재해석된 동시성의 특성은 표현 형식과 방법, 그 실현 가능성에 무게를 둔 해석으로 이끌어 가고자한다.

앞의 과정들을 통해 도출된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들은 오늘날 현대 공간이 가질 수 있는 잠재된 가치와 다양성의 탐색에 초점을 맞춘 사례 분석의 틀로 전개된다.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된 공간들은 오늘날 현대가 지향하고 있는 사고의 배경들에 좀 더 가까이 접근하여 그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2000년대 이후의 국·내외 사례들로 그 사례 연구의 범위를 정하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유동적인 형식에 바탕을 둔 공간이 그 대상이 되며 전시 공간, 설치 공간, 인스톨레이션 공간 등 오늘날의

현대 공간이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영역과 위치에 있는 공간들이 제시된다.

## 2. 베르그송의 동시성 고찰

### 2.1. 동시성의 등장

동시성은 흔히 어떤 현상이나 사건들이 동시에 나타나고 행해지는 것으로 이해된다. 베르그송의 논문 ‘지속과 동시성’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나타나는 시간관과 대비되는 시간관을 보여준다. 앞의 두 시간관의 대비는 동시성에 대한 견해 차이에서 시작되며 그에 따른 양쪽의 주장은 과학의 시간(물리적 동시성)과 철학의 시간(철학적 동시성)으로 풀이될 수가 있다. 과학적 사고로부터 나타나는 공간 개념은 동질적 시간으로 존재한다. 과학적 사고로 접근하기 힘든 내적 의식은 지속적으로 구성되는 이질적 시간을 이끌어 간다. 전자는 순간의 동시성으로 후자는 흐름의 동시성으로 간주 할 수 있다.

베르그송의 ‘최초의 동시성 관념’은 물가에 앉아서 바라보는 물의 흐름, 물 위를 흘러가는 배, 우리 의식의 흐름, 이 세 가지의 예를 통해 설명된다.<sup>1)</sup> 앞의 두 자연적 현상은 각각의 지속으로 존재하지만 우리 의식의 흐름, 즉 의식의 지속에 결합될 때 이들을 동시적이라 할 수 있다. 결국 베르그송의 동시성은 의식과 함께 지속하며 이 지속은 연속성에 근거하기 때문에 정지된 공간적 시간 개념의 동시성과는 다른 의미를 지니게 된다.

### 2.2. 지속의 개념

베르그송의 사유에서 시간은 공간화 된 통상적인 시간 개념과는 대립된다. 그에게 있어 시간은 구체적인 경험이다. 매 순간 경험들의 지속은 시간의 질적 운동이며 우리 의식이 마주하는 모습으로서의 시간이다. 즉, 시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규칙 없이 침투해 가는 기억의 흐름이다. 측정할 수 없는 시간이자 분할되기 힘든 시간인 지속은 시계로 측정되는 시간의 공간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 변화의 연속인 것이다. 변화와 차이에서 나타나는 이질성의 연속적 과정이 바로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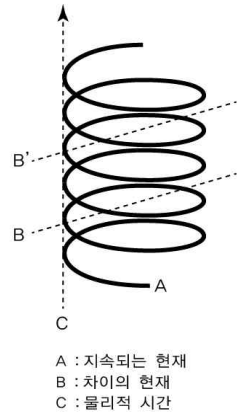
지속은 흐르는 시간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헤라클레이토스<sup>2)</sup>의 말이나 멜로디의 예<sup>3)</sup>는 지속의 의미를 쉽게 이해시켜준다. 다른 예로 얼음이 녹는 상황을 이야기

1)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p.437 참고 요약

2) 고대 그리스 철학자인 헤라클레이토스의 철학에서 핵심은 로고스(Logos)이며, 이를 통해 만물의 다양성을 정의하며 모든 것은 영원 생멸하고 변화한다고 역설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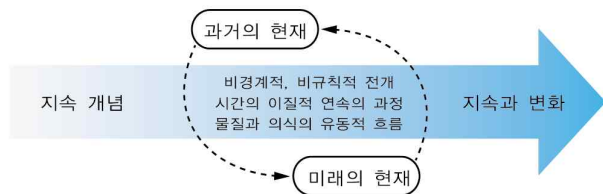
3) 통상적인 시간 개념이 정당화하는 많은 오류들은 멜로디를 분절하여 표현하게 되는데 이 같은 오류들은 멜로디의 지속적 흐름을 설명하기 어렵다.

할 수 있다. 시간이 지날수록 부피가 줄어드는 얼음과 늘어나는 물의 양에서 우리는 분절된 시간이 아닌 질적 변화의 연속을 이해할 수 있다. 환경적 요인에 따라 매 순간 지각되는 유동적인 시간의 흐름을 이뤄가는 속도 차이를 보일 뿐이다. <그림 1>을 보면 임의로 규정된 물리적, 공간적 개념(C) 속에서 시간의 흐름(A)은 과거에서 현재로 지속하면서 또 다른 차이의 현재(B, B')들을 만들어내게 된다.



<그림 1> 지속되는 현재

이 두 가지의 시간(A, C)은 베르그송에 의해 양적 시간과 질적 시간으로 구분된다. 질적으로 연속하는 지속의 개념이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에서는 과거를 현재로 연장하며 새로운 질을 산출하는 기억의 운동으로 해명<sup>4)</sup>되는데 기억은 지속의 또 다른 표현이 된다.



<그림 2> 지속 개념에 근거한 동시성의 전개

### 2.3. 기억과 지각의 개념

기억은 심리적 활동이기 이전에 지속의 다른 표현이며 지각은 기억이라는 잠재성의 존재를 이마쥬<sup>5)</sup>로 구체화하는 도구이다. 그런 면에서 지각은 기억과 공존한다.<sup>6)</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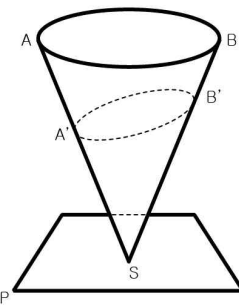
베르그송의 원뿔 도식은 기억과 지각의 공존을 설명하고 있다. <그림 3>의 뒤집어진 원뿔은 현재의 지각과 과거의 기억이 교차하는 상황이며 과거의 전체이자 시간과 기억이 공존하는 표상이다.

과거는 기억이 지각으로부터 건져져서 기억이 아닌 현재로서 현재의 한 부분과 결합하게 되는 것이다. 이 때

4) 김재희, 『물질과 기억』, 살림, 2008 p.78  
 5) 이마쥬란 우리의 기억이 지각을 통해 현실화되는 것이며 현상하는 모든 물질이라 볼 수 있다. 김성호의 논문 '베르그송, 들뢰즈의 철학에 내재한 가상현실'에서는 이미지를 이마쥬로 대체해 풀이하는데 이는 철학적 논의에서 오해의 소지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앞의 김성호의 논문에서 각주로 설명된 베르그송의 '물질과 기억'의 내용으로 부연하면 다음과 같다. '이마쥬는 관념론자가 표상이라고 부르는 것 이상의 존재, 실재론자가 사물이라고 부르는 것보다 더한 존재, 즉 사물과 표상 사이의 중간에 위치한 존재'이다.  
 6) 김성호, 베르그송, 들뢰즈의 철학에 내재한 가상현실, 프랑스학연구, 2012, p.5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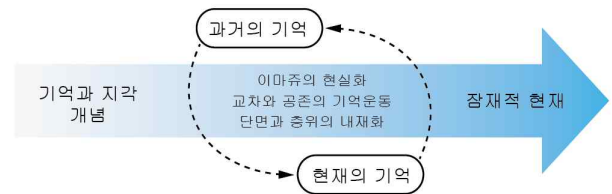
건져지지 못한 기억은 망각되어 사라지지 않고 잠재성으로 존재하게 된다.

때때로 경험은 지속되는 기억의 한 단면으로 우리의 식 속에 저장되어 변화되고 새롭게 재구성된다. 저장된 기억은 다시금 동시에 여러 기억으로 구체화 된다. 기억



<그림 3> 베르그송의 원뿔 도식<sup>7)</sup>

과 기억 사이의 흐름은 모든 방향으로 자유롭게 움직이는 그 자체로의 실체가 된다. 결국 흐름의 시간이란 현재가 과거로부터 오는 일방적 진행이 아닌 상호 침투와 교차 속에서 과거를 안고 앞을 향하는 역동적인 잠재적(실재의) 현재가 된다.



<그림 4> 기억과 지각 개념에 근거한 동시성의 전개

### 2.4. 소결(흐름의 동시성)

베르그송은 의식의 본질은 지속이며 그것의 존재론적 토대가 바로 기억이라고 하였다. 물질세계에 있어서 시간은 끝없는 소멸적 존재지만 의식과 생명은 과거를 자기 내부에 보존함으로써 물질적 일회성을 극복한다.<sup>8)</sup> 의식은 인간의 경험과 기억이 시간으로 내재화되는 층위로 흐름의 전체를 형성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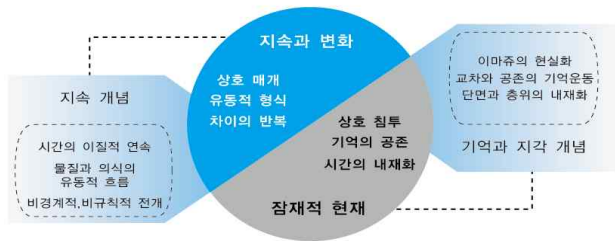
베르그송은 인간의 인식 행위가 전광판에서 나타나는 운동과 유사하다고 생각했고, 수동적이고 정적인 좌표 공간 속에서 규정되기 보다는 힘과 움직임을 담아 낼 수 있는 동적인 공간에서 규정되어야 한다고 했다.<sup>9)</sup> 이는 앞서 언급된(세 가지의 흐름) 물질과 의식이 서로 필연적

7) 베르그송의 원뿔 도식에 A'-B'의 단면을 재구성 (A'~B')와 같은 기억의 절단면은 잠재성의 존재이며 순간적이고 개별적인 요소들이 아닌 총체적 흐름이다. 의식의 범위와도 같은 기억이 (S-A-B')의 도상으로 표현될 때 (A-B)는 부동하는 과거의 지점이며 (S)는 현재의 지각행위로서 현재의 면(P)에 접촉한다. 현재에서 면 기억(A-B)와 가까운 기억(A'-B')로 표현되는 기억의 수준들은 현재적 지각(S)의 움직임에 따라 잠재성의 소통을 통해 더욱 빠른 원뿔이 되거나 완만한 각도의 원뿔을 이루기도 한다. 이를 두고 베르그송은 면 기억(A-B)로 향하는 현재적 지각 상태를 기억의 이완상태이자 명상으로, (P)의 현재면으로 향하는 현재적 지각 상태를 기억의 수축상태이자 행동과 충동으로 설명하고 있다.  
 8) 큐비즘에 관한 연구-베르그송 철학과 동시성 개념을 중심으로, 류지석, p.126  
 9)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아카넷, 2006, p.155의 내용을 재정리

으로 연결되어 흐르는 과정의 형식적 전체가 된다.

덧붙여보면 과거 큐비즘이 베르그송의 동시성 이론의 영향 속에서 이루고자 했던 흐름의 시간과 유동적인 형식의 갈망은 다시점과 복수적 시간성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획득하였지만 결국엔 정지의 개념인 단면들의 열거와 병렬적 공간 구성의 한계를 벗어나진 못한다.

정리해 보면 진행형인 실재로 밖에 달리 설명할 수 없는 지속과 변화의 매개적 관계는 무수한 차이의 반복을 통한 이질성의 연속으로 자연스러운 시간의 흐름을 만들고 있다. 이는 질적 변화와 생산에 기인한 동시성의 바탕이다. 이런 흐름의 과정은 실재가 되는 잠재성의 현재와 서로 유기적인 시간의 관계로서 총체적 흐름을 이룬다. 이 때 과거와 현재의 교차는 기억의 상호침투에 의한 공존 방식으로 인해 경험과 기억이 다양한 층위의 연속을 이루며 시간의 흐름에 내재된다. 우리 의식의 실재이기도 현재에 대한 인식, 이를 우리는 흐름의 동시성이라고 부를 수 있다.



<그림 5> 흐름의 동시성의 특성

### 3. 흐름의 동시성을 통한 공간

#### 3.1. 지속과 변화의 공간

지속과 변화는 서로를 매개한다. 이들의 매개적 관계는 홀로 존재할 수 없는 불가분적 관계를 의미한다. 공간에서 나타나는 이들의 매개성이란 변화를 향한 연속적 과정의 시작이며 서로의 위치를 시간의 모습으로 대체해가는 성격을 가진다. 진정한 의미의 질적 시간 앞에서 변화란 지속과의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지속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며 이는 곧 상호 매개 속에서 그 존재를 자연스럽게 드러내게 된다.

공간 속에서 지속과 변화의 매개적 관계가 자연스럽게 드러나기 위해서는 유동적 형식을 전제조건으로 하나로 내세우게 된다. 공간은 변화의 지속성을 잃지 않기 위해 단절 없는 변화의 연속, 즉 비분절의 모습으로 존재하게 된다. 공간의 부분과 부분이 단절된 면면으로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이 지각될 수 있는 유동적 흐름으로 서로를 연결하여 전체를 이뤄가는 것이다. 흐름과 시간성의 표현, 나아가 동시성의 표현은 이러한 비분절

의 모습을 지닌 유동적 형식을 바탕으로 이뤄진다.

비분절의 공간은 공간의 유동적 형식이 이끄는 운동성을 통해 그 생명력 지니게 된다. 공간의 흐름, 즉 운동은 차이와 반복의 개념 속에서 불규칙적이고 비위계적인 모습으로 나타난다. 경계 없는 공간과 시간, 그리고 비규칙적인 흐름의 무질서로 이해될 수 있는 공간의 비위계성은 예측 불가능한 흐름의 공간이 지닌 미래에 대한 기대이자 잠재성의 발현이기도 하다.

객관화되고 표상화 되는 시간이 아닌 질적 개념으로서의 시간은 예측 불가능한 곳으로 지속을 이끌어간다. 자연의 현상은 이러한 객관화되지 않는 비표상<sup>10)</sup>적인 시간으로 공간과 결합되기에 용이하다. 우리의 현전에 놓인 다양한 자연적 현상들은 반복되지 않은 동일성으로 흐르고 있으며 그것의 예측 불가능한 이질성의 반복은 비표상적 시간 개념에 따라 공간의 시간을 감각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공간의 생명은 주체와 타자가 서로를 대체하며 안과 밖으로 서로 침투하는 의식의 지속적 움직임이다. 나아가 물질적인 움직임으로 확대 결합되어야 또 다른 공간과 의식을 재구성하는 진정한 공간의 호흡과 흐름을 느낄 수 있다.



<그림 6> 극장(Theaters) 시리즈, 히로시 스키모토

일본의 사진 작가 히로시 스키모토의 초기 대표작인 극장(Theaters)시리즈는 사진이라는 형식, 그 자체로는 평면성의 실재를 지울 수 없기에 진정한 공간의 지속과 변화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2차원의 공간, 즉 현상의 움직임과 흐름이 표현되지 못하는 평면의 사진은 그럼에도 의미적으로는 지속과 변화의 표현을 토대로 동시성 개념에 충실하게 접근한다. 장시간 노출이라는 촬영 방식을 통해 시간의 지속을 재구성해 나가고 있으며 이는 시간성을 지닌 사물의 분절되지 않는 생성과 변화하는 운동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것은 공간이 지닌 변화의 매개성과 지속성이 정지된 한 장의 시간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 압축된 한 장의 시간은 비표상적 공간의 모습으로 차이와 반복의 연속이자 비분절의 지속을 통해 궁극적으로 우리가 지닌 실재에 대한 표상적 관념의 오류에 대한 물음을 던지고 있다.

한편, 프랑스 파리에 있는 아랍문화원은 현대와 전통,

10) 지속과 변화의 개념 아래 표상하기 어렵고 재현과 정의될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근대성에 반하는 하나의 개념으로 비결정, 비장소, 무질서, 다양성 등 관념화되기 힘든 의미들의 연속으로 베르그송의 동시성의 개념에 맞닿아 있다.

과거와 현재의 결합이자 지속된 흐름을 이뤄가는 공간으로도 풀이 할 수 있다. 이 공간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 요소는 빛이라고 볼 수 있다. 예측 불가능하고 동일하지 않는 시간 흐름으로 존재하는 자연적 현상들은 공간에 새로운 변화의 생명력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바탕에 다양한 방법의 표현적 접근은 공간의 잠재성을 깨우는데 적지 않은 역할을 한다. 아랍 문화원 역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빛을 공간의 하나로 이끌어 들이고 있는데 카메라의 조리개 원리의 활용이 바로 그것이다. 단순히 자연의 현상만이 아니라 물리적 요소와 원리를 결합하여 유동적 형식을 갖춰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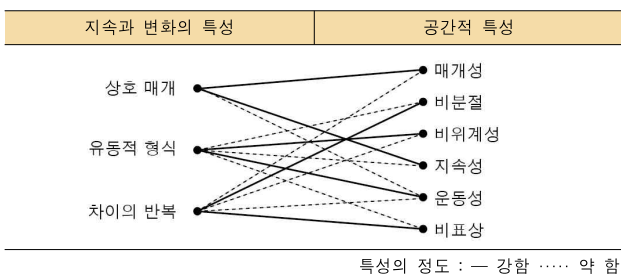
<그림 7> 아랍문화원, 장 누벨

인공과 자연의 지속적인 결합은 지속과 변화라는 매개성의 연장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공간의 무한한 변화는 매 시간 흐름에 따라 그 모습을 우리에게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조리개 원리를 통해 표현된 유동적 형식은 빛이라는 자연의 유동성과 연결되어 각자의 주체성과 객체성을 끊임없이 교환하면서 무질서의 운동으로 표현된다. 시간의 흐름과 환경의 변화에 따라 달라지는 빛의 세기는 조리개의 움직임에 변화시키며 이에 따른 빛의 유입은 시간에 따른 다양한 분위기를 만들어 낸다.

물질의 비물질화, 비물질의 물질화는 곧 비표상적 특성으로 대변 될 수 있으며 이는 차이들이 반복하는 연속적 시간 흐름에 따라 두드러진다. 빛을 통해 숨 쉬게 되는 조리개는 연속적 흐름 속에서 단면의 열거가 아닌 비분절의 흐름을 이뤄가고 그들의 질서는 무한히 변하는 비위계성에 존재성을 기댈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지속과 변화의 공간은 재현과 표상이 안겨주는 질서와 이성적 판단으로 분석될 수 있는 것이기 이전에 시간의 질적 변화 속에 표상되지 않는 것들이 존재하는 흐름의 실재이며 물질과 의식이 지속적으로 결합하여 운동하는 동시성의 공간이다.

<표 1> 지속과 변화의 공간적 특성



### 3.2. 잠재적 현재(실재로서의)의 공간

실재로서의 현재는 직관 될 수 있는 기억의 재인으로 재구성된 현재의 공간을 만들어간다. 실재와 분리 될 수 없는 현재의 잠재성은 자연스럽게 기억의 흐름이 된다.

기억은 과거와 현재를 넘나들며 현재의 기억을 재구성한다. 또한 공간적 경험을 통해 재인된 기억들은 그 속에서 시간의 형식으로 내재된 다양한 의미와 결합하여 가변적 층위들을 이뤄간다. 이 층위들과 연속을 이루는 과거와 미래의 현재는 감춰진 현재, 보이지 않는 현재, 가능태로 잠재된 존재, 무의식이 아닌 아직 의식되지 않은 잠시 잠들어있는 현재가 된다.

잠재적 현재의 공간은 가능성의 공간이다. 공간의 잠재성은 우리 지각과 기억에 기초하여 실재성과 결합된다. 시간의 흐름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대상을 기억하고 경험한다. 그리고 이들의 축적과 재인이 만들어낸 매개된 감각을 통해 우리의 의식 행위를 지속하게 한다. 이런 행위와 과정 앞에 공간은 물리적 장치의 하나이며 그 속에 위치할 우리에게 새로운 인식의 흐름을 만들어 삶과 소통하는 하는 하나의 장으로 역할하게 된다.

우리가 지닌 감각들은 공간에 대한 경험과 소통으로부터 시간의 내재화를 이룬다. 이는 감각적 경험이 이끌어낸 시간 경험이자 원초적 감성과 본능에 의해 요구되는 경험이며 공간과 의식이 합치되는 동시성의 경험이다.

<그림 8>의 두 사례는 지각과 기억이 공존하는 잠재적 공간이라 볼 수 있다. 다른 듯 비슷한 이 두 사례는 우리의 기억 한편에 잠든 잠재성을 일깨우며 공간 경험으로 이행하고 현재의 위치에서 재구성된 기억의 연속들을 이루고 있다. 경험을 한다는 것은 곧 직관으로의 접촉이며 쉽게 설명되기 힘든 공간의 직관적 접촉이다. 이러한 공간과의 직관적 접촉은 우리가 지닌 다양한 감각들이 서로 매개하며 이끌어내는 감각적 공간으로서 그 이해를 돕게 된다.



<그림 8> (좌) '어둠 속의 대화' 전시<sup>11)</sup>, (우) Antony Gormley, Blind Light

체험 공간의 하나인 '어둠 속의 대화' 체험전시는 시각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토대로 그들의 기억을 우리의 기억으로 재구성하게 된다. 어두운 공간에서 펼쳐지는 다양한 상황의 전개 속에서 체험자는 청각, 촉각, 후각 등 시각을 제외한 다감각적 경험을 하게 된다. 감각과 감각

11) 표상 될 수 없는 공간은 그 자체로 실재하는 현재를 표상으로 부터 벗어나 우리에게 제시한다. 표상에서 자유롭지 못한 우리의 의식에 또 다른 감각적 지각과 기억의 운동을 일깨워주는 장이 된다.

이 서로 매개되어 떠올리지는 공간은 시각성의 대체가 아닌 매개된 시각적 감각으로 이해 될 수 있으며 극대화된 제인의 상상력으로 보게 되는 어둠의 공간은 시간에 대한 관습적인 이해 또한 새롭게 받아들여지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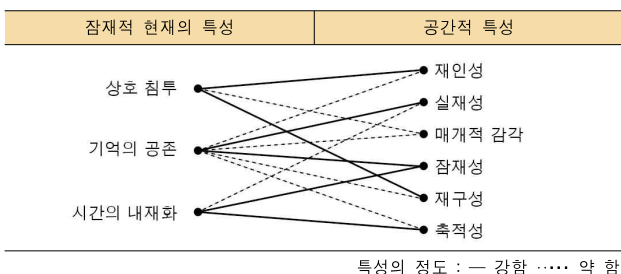
한편 Antony Gormley의 설치 공간, ‘Blind Light’는 안과 밖에서 지각된다. 안개가 가득한 공간에서도 시각적 감각은 역시 무용의 것이 되며 대신 다양한 감각으로부터 빚어진 매개적 감각들이 참여자의 행동을 시각으로부터 이끌어 낸다. 무의 공간에서 가득 찬 실체들은 잠재된 기억과 현재를 드러내 보이게 되는데 이러한 직관적 공간에서 체험자들이 지닌 시간은 각자의 재인과 축적으로 재구성된 경험이며 질적으로 서로 다른 의미의 연속을 이루는 것이다. 이 무의 공간에서 지각되는 시간은 양적인 표상으로 존재하지 않으며, 표상을 찾는 행위 또한 무의미하다. 공간에서 지각되는 흐름의 실체는 내재된 시간을 통해 각자의 기억과 교감하는 장이 된다.



<그림 9> Son-O-House, NOX

한편 “Son-O-House(A House Where Sound Live)”는 네덜란드 디자인 그룹 NOX와 미디어 아티스트 Edwin van der Heide와의 협업을 통해 만들어진 공간이다. 이 공간은 시간의 잠재성, 기억과 지각의 재구성을 통해 이뤄가는 소리의 공간을 제시한다. 공간에는 23개의 센서와 20개의 스피커가 곳곳에 위치해있다. 관람객의 움직임과 위치를 감지하고 음향 제어 방식의 프로그래밍을 통해 매 순간 변하는 관람객의 움직임과 호흡하는 소리의 공간을 만들어낸다. 공간과 사람, 음향이 끊임없이 재구성해 나가는 진화의 공간이다. 이는 관람객, 즉 인간의 지각과 기억이 만들어가는 기억의 운동임과 동시에 공간 자체가 지니는 기억의 운동으로 풀이된다. 소리 내어 숨쉬는 공간의 인격화는 공간이 기억하는 또 다른 잠재성의 발현이며 기억의 공존과 축적, 그리고 재구성은 그 자체로 부인할 수 없는 실재성의 공간으로 위치한다.

<표 2> 잠재적 현재의 공간적 특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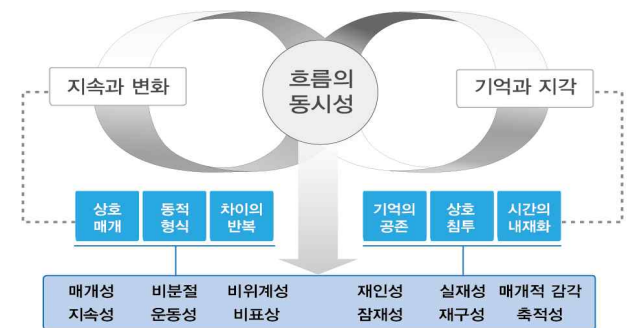
### 3.3. 소결

베르그송의 시간은 또 달리 말하면 체험이다. 지각된 기억의 이미지들에 대한 경험은 지속된 경험으로의 현재로 재구성 되어 간다. 공간에서 마주하는 운동성은 이러한 의식적 흐름에 합류하여 동시적 흐름을 이루게 된다.

지속과 변화가 지각된 기억으로 인해 그 흐름을 유지해 갈 때 우리는 우리의 기억이 재인되고 재구성되어 그 변화의 흐름 속에서 분절되지 않은 비위계적인 연속성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경험 할 수 있다.

공간에서 나타나는 동시성은 결국 공간이 지닌 물리적 성격들이 적극적인 유동적 형식의 운동성을 지닐 필요가 있다. 이와 함께 우리의 의식이 그 운동의 흐름 속에서 새로운 경험적 기억, 다시 말해 과거와 현재를 서로 침투하는 기억과 공간적 경험이 잠재된 기억을 일으켜 공간과 재구성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공간과 재구성된 다양한 기억 층위가 축적되고 상호 반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의 동시성이 형성 될 수 있을 것이다.

지속은 변화를 거둬들이는 전 방위적 기억 운동의 현재이다. 그리고 기억과 지각은 매 순간의 과거가 된다. 과거의 움직임이 현재로 이행되는 일반적 인식에서 우리는 시간 흐름에 의해 미래의 현재를 기대할 수 있는 동시성을 그려볼 수 있다.



<그림 10> 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 4. 사례분석

본 연구에서는 분석된 공간 사례는 실제 실생활에서 지속적으로 접하게 되는 실내 공간과 전시 공간, 인스톨레이션 공간 등 현대 공간이 포괄할 수 있는 다양한 내용과 형식을 지닌 사례로 제시 하고자 하였다. 이는 베르그송의 동시성이 지향하는 지속의 흐름과 비표상적 형식이 지닌 의미에 기인하는 연속적 과정의 하나로 볼 수 있다. 현대라는 시대적 사고의 배경과 그 흐름에 맞춰 사례 선정은 2000년대 이후를 시간적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다양한 사례의 제시를 위해 그 범위를 특정 지역에 국한 시키지 않고 국·내외 전체로 설정하였다.

위와 같은 선정 배경을 기준으로 유동적 공간, 동시성의 공간, 미디어 공간, 유기적 공간 등의 키워드를 통해 사례들이 제시 될 수 있었으며 공간과 자연, 환경을 소재로 공간 표현을 이끌어가는 창작자(디자이너, 예술가, 건축가)를 중심으로 사례 조사의 범위를 넓혀갔다. 선별

된 6개의 사례는 건축 공간, 인스톨레이션 공간, 전시 공간, 과학기술의 적용과 자연 현상과 결합을 이뤄가는 공간들이 중복됨 없이 다양하고 고르게 제시되도록 하였으며 사례들은 년도 순으로 구성된다.

<표 3> Skyspace at Live Oak Friends meeting house


공간명	Skyspace at Live Oak Friends meeting house	작가명	James Turrell	위치	Houston, Texas	년도	2000
공간 이미지 및 내용							
		제임스 터렐이 '하늘 공간'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한 프로젝트 중 하나로 빛과 자연 그리고 관람자의 의식이 마주하는 비물질적 공간에서 모호한 경계의 경험을 만들어낸다.					
		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 ○ - 약함)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자연(하늘의 흐름)은 변화의 연속이며 실제하는 인공의 빛과 서로 매개된 공간을 이룬다. 공간의 흐름을 지속하게 하는 지속과 변화의 상호 매개성을 드러낸다.
- ▶ 공간에서 나타나는 현상과 의식이 만들어낸 가시적인 운동성은 동시에 비가시적인 공간의 흐름으로 나타난다. 자연과 인공의 조화는 쉽게 구분되지 않는 경계와 어우러진 이질적인 공간감으로 비분절적 특성을 드러낸다.
- ▶ '눈으로 보지 말고 마음으로 응시하라' 라는 제임스 터렐의 말처럼 공간은 비물질화 되어 있는 그대로 제시되는 비표상적 실재만이 있다.
- ▶ 자연이 이끌어내는 지속과 변화는 곧 잠재적 현재가 된다. 이는 공간의 실재성에 이르는 것으로 재현으로 표현된 공간이 아니라 흐름으로 실제하는 공간이 된다.
- ▶ 재현되지 않은 공간의 모습은 우리를 기억의 이완으로 표현되는 명상의 차원으로 맞이한다. 이는 과거를 향하는 기억으로 풀이될 수 있다. 재현되지 않은 공간에서 우리는 심연을 유평하는 기억의 운동을 행하며 조용한 침묵의 소통으로 내면을 응시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내면의 응시를 통해서 우리는 공간적 경험과 기억, 그리고 감각들을 기억의 다른 한편에 축적하고 다시 재인되고 재구성된 기억과 경험을 통해 공간과 소통한다.



【인공과 자연의 흐름-지속과 변화의 상호 매개적 공간】 【이질성이 조화된 비경계의 비표상적 공간】 【현상과 의식의 가시적 운동성과 비가시적 운동성의 공간】  
 【자연 현상의 흐름을 통한 잠재적 현재- 공간의 실재성】 【재현이 아닌 흐름의 응시】 【공간이 이끌어가는 명상적 기억운동】

<표 4> To Breathe : A Mirror Woman


공간명	To Breathe : A Mirror Woman	작가명	김수자	위치	Palacio Cristal, Madrid	년도	2006
공간 이미지 및 내용							
		노마디즘, 유목적 개념으로 시작된 그녀의 창작행위 중에 공간으로 접근된 이 유리궁전은 기존의 공간적 형식과 의미를 안고 새롭게 더해진 물질과 빛의 결합적 반응을 공간 속으로 유도한다.					
		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 ○ - 약함)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자연의 흐름이 물질의 기억 속으로 유입되면서 시작된 총체적 지속성은 빛과 인공의 상호작용으로 변화의 연속을 이끄는 지속의 매개성을 보여준다.
- ▶ 무위의 자연과 인공의 공간이 일치되는 상황은 유리를 통해 분절될 수 없는 비분절성의 공간을 보여준다. 또한 자연과 물질의 결합은 무수한 변화의 영상을 만들면서 무질서의 운동으로 이해되는 비위계성을 드러내게 된다. 그 순간 변화의 주체는 자연과 인공이 아닌 동시성 자체가 된다.
- ▶ 매 순간 동일하지 않은 빛과 공간은 비분절된 흐름의 연속이다. 탈구축적이며 비물질적인 물질의 빛의 가변적 지속은 비표상적 공간의 흐름을 이어간다.
- ▶ 빛의 향연은 작가가 표현한 숏소리와 명상적 음향과 결합하여 보다 깊은 공간의 울림을 형성한다. 이는 재현이 아니며 무엇인가를 드러내 보이려함도 아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해석될 수 없다. 있는 그대로의 공간과의 소통이며 공간의 잠재성으로 드러나서 결합되는 기억의 지속적인 탐색의 과정이다.
- ▶ 각자의 기억과 경험에 의해 실재의 모습으로 건져진 공간은 빛이 변화하는 매 순간의 흐름을 함께 하면서 기억의 재인을 반복한다. 공간과 참여자, 자연 요소 간의 동시적인 흐름이 기억의 재인성과 축적성을 이끌어낸다.
- ▶ 빛의 색이 전하는 시각적 감각은 기억으로 축적된다. 기억에 내재된 재인적 감각은 시각만으로 형언하기 힘든 촉각과 감각으로 매개되는 감각의 흐름을 보여준다.



【인공과 자연의 흐름-지속과 변화의 상호 매개적 공간】 【비물질성의 가변적 지속 - 비표상적 공간】 【빛과 음향의 실재적 소통의 공간- 잠재성의 공간】  
 【시각적 감각을 통한 기억의 축적】 【시각감과 기억의 연결을 통한 매개적 감각】

<표 5> Seed Cathedral

공간명	Seed Cathedral	작가명	Thomas Heatherwick	위치	Uk Pavilion, Shanghai Expo	년도	2010
공간 이미지 및 내용							
		2010년 상하이에서 열린 엑스포에서 영국관이 '씨앗의 성전'이라는 이름으로 관객을 맞이한다. 6만개의 광섬유들은 공간 내에 각자 다른 씨앗을 품으면서 살아 숨 쉬는 공간의 내적 의미를 생성한다.					
		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약함)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공간에서 나타나는 시간적 매개성은 그 자체로 움직임의 연속을 이룬다.
- ▶ 자연과 맺어진 공간의 움직임은 지속과 변화의 매개성에 맞닿아 있다. 매개성은 공간의 운동성으로 공간적 특성을 구성하며 동시성을 경험하는 바탕을 이룬다.
- ▶ 6만개의 광섬유 막대에 의해 시작되는 공간의 물질적 운동은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는 공간의 흐름이며 이는 더욱 고차원적인 공간의 비분절성으로 이해된다.
- ▶ 비위계적인 시간의 무질서 속에서 일렁이는 공간의 움직임은 생명이 지닌 근원적인 지속과 변화의 모습이다.
- ▶ 실재의 모습으로 비규칙적인 지속을 행하며 공간이 주는 전형적 인식을 탈피하는 비표상적 공간을 지향한다.
- ▶ 광섬유 막대에 의해 심 없이 공유되는 자연과 인공의 빛은 물질의 기억과 우리의 경험 및 기억을 단절 없이 지속적으로 연결시켜준다. 이러한 공간적 형식은 내·외부에서 이어지는 기억의 재인성에 바탕을 두게 되며 공간의 내·외적 형식과 의미에서 작용하는 기억 운동으로 연결된다.
- ▶ 공간이 보여주는 생명의 움직임과 그 내적 의미들은 공간을 경험한 참여자의 기억에 내재된 다양한 공간적 의미들과 결합한다. 이 의미들은 기억의 형태로 잠재성을 지니게 된다. 공간의 경험은 기억의 가변적 층위들 속에 축적되고 잠재된 기억의 생명력으로 공간을 감각 할 수 있게 한다.



**【공간의 시간적 매개성】 【자연을 통한 지속과 변화】 【유동적 형식을 통한 매개적 공간의 동시성】**  
**【비위계적 무질서를 지닌 생명의 공간】 【실재의 모습으로 지속하는 비표상 공간】 【내외부의 연결을 통한 기억의 재인성과 공간적 의미의 잠재성】**

<표 6> Your Rainbow Panorama

공간명	Your Rainbow Panorama	작가명	Olafur Eliasson	위치	ARoS Aarhus Kunstmuseum	년도	2011
공간 이미지 및 내용							
		Olafur Eliasson의 또 다른 빛의 공간으로 260톤에 달하는 거대 유리로 구성되었다. 이 공간에서 사람들은 덴마크 도시의 풍경을 시시각각 변하는 빛의 연속으로 지각하게 한다.					
		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약함)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실재하는 시간 흐름 속에서 지속과 변화는 서로를 의존하고 매개한다. 이는 'Your Rainbow Panorama' 공간에서도 잘 드러난다. 색상의 스펙트럼은 연속된 풍경을 저마다 다른 느낌으로 바라보는 시각적 장치로서 이들의 지속된 풍경은 지속과 변화의 매개성을 드러낸다.
- ▶ 직접적인 운동적 작용 대신 단면의 열거로 구성된 공간을 분절된 형식이라 보긴 어렵다. 왜냐하면 관람객의 이동에 의해 느껴지는 변화는 매 순간 지속성을 유지하고 이 지속성은 비분절의 형식과 긴밀한 관계를 이루기 때문이다.
- ▶ 자연과 공간과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과정에서 'Your Rainbow Panorama' 공간의 경우 유리라는 물질이 그 주체가 된다. 시각에 기초한 감각을 운동성으로 대체하여 감각하게 하는 공간적 표현 방식은 시각적 촉각, 심적 감각으로 향하는 매개된 감각을 일깨운다.
- ▶ 공간에서 경험되고 지각되는 관람객의 기억 운동은 스스로의 의식 속에서 생소한 풍경으로 부터 과거를 탐색하게 한다. 재인된 기억은 현실과 지속적으로 마찰하며 축적된다. 이는 공간이 재현의 형식에 기초하지 않았고 실재의 모습으로 제시되었기에 가능하다. 이는 공간이 지닌 잠재성의 발현이라고 볼 수 있다. 더불어 색상의 감정이 입혀진 도시는 재구성된 기억, 즉 매 순간 변화하고 흐르는 현재의 이미지로 재구성된다.



**【색상의 스펙트럼이 연속된 지속과 변화】 【관람객의 이동을 통해 나타나는 공간의 지속성과 비분절】 【자연과 인공의 유기적 관계 - 물질의 주체적 공간】**  
**【시각각의 운동성에서 매개된 심적 감각】 【공간 경험을 통한 기억 운동 - 이질성에 대한 기억 탐색】 【재현이 아닌 실재의 잠재적 공간】**



<표 7> Untitled

공간명	Untitled	작가명	Celeste Boursier-Mougenot	위치	국립현대미술관(과천)	년도	2011																														
공간 이미지 및 내용																																					
		<p>과천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열린 전시, 139개의 도자기가 물의 흐름위에서 서로 비규칙적인 운동을 지속한다. 이 때 서로 부딪치는 도자기는 공간에서 새로운 감각적 울림을 이끌어낸다.</p> <p style="text-align: center;">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약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지속과 변화</th> <th colspan="3">잠재적 현재</th> </tr> <tr> <th>매개성</th> <th>비위계성</th> <th>운동성</th> <th>재인성</th> <th>매개적감각</th> <th>재구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비분절</th> <th>지속성</th> <th>비표상</th> <th>실재성</th> <th>잠재성</th> <th>축적성</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차이와 반복은 지각된 기억과 함께 유기적인 현재를 이루게 된다. 서로 매개된 지속과 변화의 매개성은 운동성 속에서 실제 불가분의 관계로 존재한다.
- ▶ 공간에서 보이는 139개의 도자기는 물의 흐름에 따라 불규칙적으로 서로 부딪치며 다양한 지속의 멜로디를 생산한다. 지속적으로 변화되고 생산되는 도자기들의 멜로디는 공간 흐름의 핵심인 매개성, 비분절, 비위계성에 바탕을 두고 지속성과 운동성으로 그 공간을 표현해 나간다.
- ▶ 인위적으로 장치된 형식 속에서 물이 지닌 자연적 속성의 움직임은 도자기들을 매순간 지속과 변화로 이끌어 간다. 이 흐름이 우리의 의식과 결합할 때 우리의 기억은 지각으로부터 건져 올린 수많은 명상적인 현실 마주하게 된다. 이는 기억의 잠재성이 드러나는 과정을 의미한다.
- ▶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하는 감각의 매개는 우리의 기억으로 침투하여 잠들어있는 경험적 기억을 깨우는 재인의 과정으로 이르게 된다. 어디서 본 듯하고 들었던 것 같은 재인의 과정에서 나타난 이미지는 잠재성에서 실재성으로 드러난다. 공간은 이러한 기억 운동의 장으로서 그 특성들을 드러낸다.
- ▶ 공간에서 느낀 감정과 경험, 재인은 다시 기억에 축적된다. 이는 매개적 감각을 행하는 과정이다. 공간에서 울리는 도자기의 즉흥시는 우리의 기억에 축적된다. 이는 기억의 축적이 다시금 잠재성으로 전환되는 과정이며 언제 떠오를지 모를 기억과 공간의 잠재성은 지각과 경험의 과정으로 재인되어 나타날 미래의 기대가 된다.



【무한한 차이와 반복의 유기적 현재】 【매개성과 운동성의 실제 불가분의 관계】 【지각되는 지속성과 운동성의 공간】  
 【기억의 심연을 자극하는 잠재성을 지닌 명상적 공간】 【시각에서 청각으로 전환하는 매개적 감각의 공간】 【변화의 움직임에 의한 기억의 축적과 재인】

<표 8> Rain Room at The Curve

공간명	Rain Room at The Curve	작가명	Random International	위치	Barbican Centre, London	년도	2012																														
공간 이미지 및 내용																																					
		<p>디자인 프로젝트 팀 'Random International'의 인스톨레이션 공간. 객의 움직임은 프로그래밍 된 센서 장치를 통해 인식되고 움직임이 인식된 곳에는 비가 내리지 않는다.</p> <p style="text-align: center;">흐름의 동시성의 공간적 특성 (특성 정도의 표현 :강함 - ●●◎○ - 약함)</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head> <tr> <th colspan="3">지속과 변화</th> <th colspan="3">잠재적 현재</th> </tr> <tr> <th>매개성</th> <th>비위계성</th> <th>운동성</th> <th>재인성</th> <th>매개적감각</th> <th>재구성</th> </tr> </thead> <tbody>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r> <th>비분절</th> <th>지속성</th> <th>비표상</th> <th>실재성</th> <th>잠재성</th> <th>축적성</th> </tr> <tr> <td>●</td> <td>●</td> <td>○</td> <td>●</td> <td>●</td> <td>◎</td> </tr> </tbody> </table>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지속과 변화			잠재적 현재																																		
매개성	비위계성	운동성	재인성	매개적감각	재구성																																
●	◎	●	●	●	●																																
비분절	지속성	비표상	실재성	잠재성	축적성																																
●	●	○	●	●	◎																																
분석 내용 및 공간적 의미																																					

- ▶ '내리는 비'라는 공간적 표현 형식은 컴퓨터와 기계 장치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공간의 지속과 변화에 관여하는 것은 참여자이다. 현상과 의식이 하나 된 지속은 참여자의 움직임으로 시작된다. 예측할 수 없는 움직임은 역으로 공간에서 이뤄지는 지속과 변화의 매개성을 이끌어낸다.
- ▶ 참여자를 통해 자연스럽게 형성된 공간의 운동성은 비분절의 특성으로 그 배경을 이루게 되며 이는 곧 공간의 지속성으로 그 특성을 드러낸다.
- ▶ 떨어지는 물방울들은 참여자의 움직임과 상호 반응하는 관계에 놓인다. 기계 장치가 지닌 규칙과 질서를 벗고 움직임에 반응하는 예측 불가능한 무질서와 비논리의 비위계성은 운동성을 지닌 공간의 힘을 표출한다.
- ▶ 참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한 공간의 내적 의미들은 기억과 지각에 의존하게 된다. 참여자의 행동과 변화의 반응은 공간과 기억의 축적성에 의해 우리 기억의 한 단면으로 저장되고 변화되어 새롭게 재구성된다.
- ▶ 물이라는 속성, 그 속에서 찢지 않는 종이신문을 읽어가는 상황은 이전에는 겪어보지 못한 매개적 감각을 만든다. 또한 질서와 논리의 세계에서는 쉽게 이해하기 경험으로 또 감각과 경험의 기억을 축적해 나간다.



【참여자에 의한 공간의 지속】 【비분절의 공간을 이루는 공간의 운동성】 【규칙을 벗어난 무질서와 비위계성의 공간】 【새로운 경험에 대한 기억의 축적】

## 5. 결론

오늘날 공간과 공간 예술 영역에서 펼쳐질 철학적 사유와 개념들은 때때로 추상적인 이유로 그 개념들이 공간 속에서 실현되기 위한 현실성이 떨어질 수도 있다. 공간의 표현에 있어 철학적 사유와 마주한다는 것은 결정성과 익숙함을 선호하는 우리의 지성적 사고에는 아직 많은 부담이 생기는 것도 사실일 것이다.

그러나 베르그송의 철학이 보여준 그의 시간 개념은 현대의 우리가 공간디자인 행위 속에서 지향해야 할 가치나 사유의 근간을 다시금 일깨워 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해된 흐름의 동시성은 지속과 변화가 만들어내는 유동성에 그 바탕을 두고 있으며, 그와

이론적 고찰과 공간적 특성의 도출을 통해 제시된 사례들은 동시성의 특성들을 고르게 지니고 있는데 그 중 Celeste Boursier-Mougenot의 공간 'Untitled' 은 자연현상도 재현도 아닌 그 자체로 지속하는 형식을 이끌어내 공간을 유동적으로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Random International의 'Rain Room at The Curve' 공간의 경우 NOX의 'Son-O-House'의 예처럼 공간과 참여자의 관계로부터 동시성을 이끌어내고 있다. 이는 참여자로부터 인격화된 공간의 모습을 지님과 동시에 과학과 기술이 공간에 적용된 동시성을 보여준다. 이 밖에 자연과 맺은 관계, 인간의 시각에 무게를 둔 다양한 형식에 기초한 공간들은 동시성의 공간을 이뤄갈 수 있는 창조적 형식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처럼 오늘날 현대 공간의 사례들을 토대로 볼 때 공간의 물리적 지속과 움직임, 즉 공간의 운동성이 만들어내는 변화의 연속은 충분히 가능해 보인다. 또한 과학과 물리적 논리들이 만들어낸 다양한 매체와 기술들의 활용은 더 이상 동일성과 이성적 논리에 국한 되지 않았다. 이들이 자연과 인간과 맺은 현상과 의식의 관계는 공간 속에서 더욱 예상치 못한 지속을 이끌어 냈으며 오늘날 공간이 시도의 차원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는 표현의 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동시성의 개념과 세부 특성, 그리고 이를 토대로 분석한 다양한 사례들은 현대 공간 디자인에서 본질적이고 잠재된 공간의 가치를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된다고 본다. 아울러 과학, 인문, 예술 및 디지털 미디어 기술과 공간의 결합을 통해 오늘날 지향되는 비표상적 공간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그 속에서 흐름의 동시성을 공간적 결합의 매개로 활용한다면 더 깊은 공간의 의미와 잠재성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재희, 물질과 기억, 초판, 살림출판사, 경기, 2008
2. 소광희, 시간의 철학적 성찰,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2001
3. 정인하, 현대 건축과 비표상, 초판, 아카넷, 서울, 2006
4. 한국동서철학회, 시간관 철학, 초판, 철학과 현실사, 서울, 2009
5. Gilles Deleuze, 베르그송 주의, 김재인 역, 초판, 문학과 지성사, 서울, 1996
6. Henri Bergson, 의식에 직접 주어진 것들에 관한 시론, 최화역, 초판, 아카넷, 서울, 2001
7. Henri Bergson,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초판, 문예출판사, 서울, 2012
8. 김태욱, 베르그송의 지각이론에 대한 연구, 중앙대 석사논문, 2011
9. 문정필, 건축조형에 나타난 시각정보의 동시성에 관한 연구, 부경대 박사논문, 2008
10. 문주니, 동시성 개념에 의한 루이스 칸 작품 해석, 부산대 석사논문, 2012
11. 이보라, 장누벨 건축에서 나타나는 '가상'의 표현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 석사논문. 2014
12. 권태일, 콜린 로우(Colin Rowe)'투명성(transparency) 이론'의 비판적 고찰, 건축역사연구, 제15권 2호, 2006.6
13. 김성호, 베르그송 들뢰즈의 철학에 내재한 가상현실, 프랑스학연구, 제62권, 2012.11
14. 김영희,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한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9권 1호, 2010.2
15. 김재희, 베르그송의 이미지개념: 『물질과 기억』을 중심으로, 철학연구회, 제56권, 2002
16. 류지석, 오찬욱, 큐비즘에 관한연구-베르그송 철학과 동시성 개념을 중심으로, 디자인학연구, 통권 제61호, 제18권 3호, 2005.8
17. 문정필, 김기환, 순간의 동시성을 통한 건축조형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9권 2호, 2007.6
18. 문정필, 김기환, 현대건축 조형에 나타난 동시성의 시간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10권 3호, 2008.9
19. 문정필, 김기환, 흐름의 동시성을 통한 건축조형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23권 9호, 2007.9
20. 박성연, 공간사유(思惟)를 통한 관계맺음, 기초조형학연구, 제15권 5호, 2014.10
21. 송영진, 베르그송의 직관론에 따른 감각-지각과 기억의 존재론, 동서철학연구, 제31호, 2004
22. 송영진, 베르그송과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한국동서철학회 논문집 제47호, 2008.3
23. 이봉순, 제임스 터렐의 공(空) 이미지, 예술학, 제 2권1호, 2006.2
24. 조소연, 시간의 지속과 순간 개념을 중심으로 한 사진 분석-앙리 카르타에 브레송과 김아타의 작품을 중심으로, 글로벌 문화콘텐츠, 제3권 2009.12
25. 하정현, 베르그송의 이론으로 고찰한 즉흥적 행동을 통한 조형 표현의 의의, 한국디자인포럼, 제37권, 2012.10
26. <http://jamesturrell.com/artworks/by-date/>
27. <http://www.heatherwick.com/uk-pavilion/>
28. <http://www.kimsooja.com/>
29. <http://www.olafureliasson.net/>

[논문접수 : 2015. 06. 30]

[1차 심사 : 2015. 07. 16]

[게재확정 : 2015. 08. 07]